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EUROPE

유럽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21~09/27

1. 유럽 항만 혼잡과 물류 지연 심화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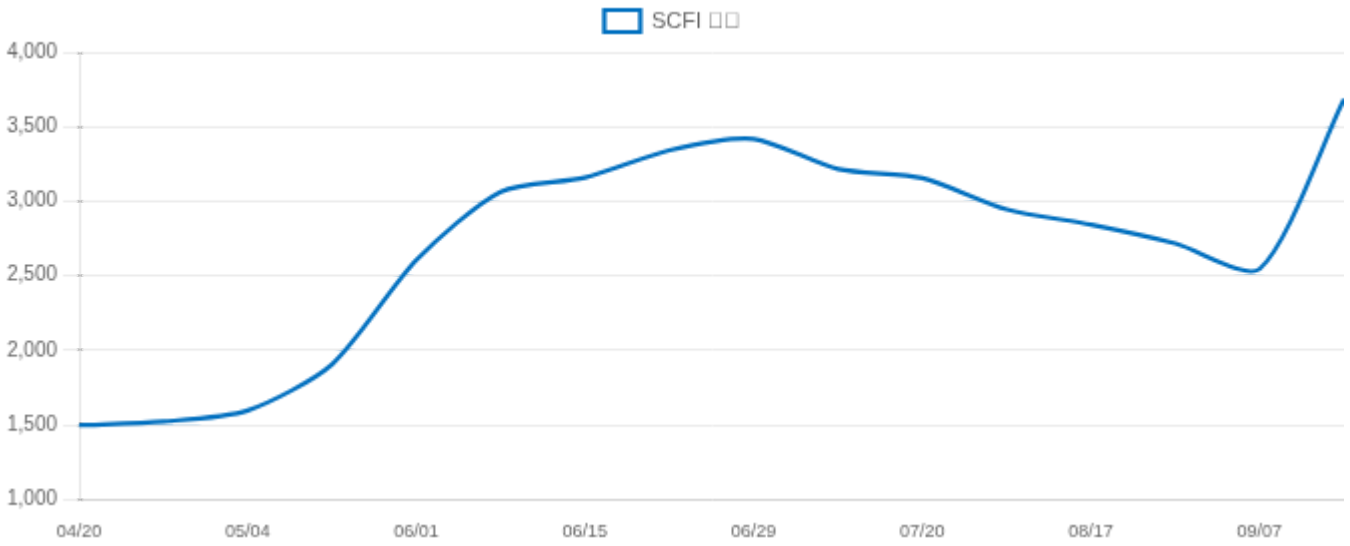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유럽 권역은 항만 혼잡과 물류 지연 심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됨.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항만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이로 인해 유럽 역내 수입·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상승과 재고 관리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단기적으로는 항만 체선료 급등과 운송 스케줄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소비재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유럽	3,683 $/TEU	09/14	+44.7%	+29.6%
KCCI 북유럽	3,985 $/FEU	09/21	-4.8%	-13.4%
KCCI 지중해	4,349 $/FEU	09/21	-6.1%	-19.8%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9/14

유럽 항만 혼잡과 물류 지연 심화

> **유럽 항만 혼잡과 물류 지연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항만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유럽 주요 항만의 혼잡이 지속되면서 선박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화물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혼잡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물동량과 항만 노동력 부족, 인프라 투자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특히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등 북유럽 주요 항만에서 체선·체화 현상이 두드러짐.

혼잡의 원인으로는 수에즈 운하 통항 차질로 인한 선박 운항 일정 변동과 대체 항로 이용에 따른 물동량 집중이 지목됨.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한 우회 수요 증가와 유럽 내 트럭 운송 및 철도 연계 지연도 복합적으로 작용함. 특히 독일의 의약품 관련 통상 분쟁은 유럽 물류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혼잡은 화주의 재고 관리와 운송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운임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선사들은 항만 기항을 건너뛰거나 운항 일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륙 운송 지연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항만 운영사들도 장비 부족과 야드 혼잡으로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임.

향후 유럽 항만 혼잡은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중국발 수출 증가와 연말 쇼핑 시즌 대비 재고 축적 수요가 더해지면 혼잡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항만 당국과 물류 기업들은 디지털화와 자동화, 대체 항만 활용 등 중장기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 로테르담항의 선박 평균 대기 시간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함
- 함부르크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함
- 유럽 주요 항만의 평균 체선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함
- 북유럽발 아시아행 컨테이너 운임이 전월 대비 12% 상승함
- 독일의 의약품 통상 분쟁으로 유럽발 미국행 화물의 통관 지연 가능성이 제기됨

전망

유럽 항만 혼잡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성수기 진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물류 지연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임. 항만 인프라 확충과 운영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류비 상승 압력도 가중될 수 있음. 다만 항만 당국과 물류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혼잡 완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화주 — 선적 일정 지연에 대비해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체 항로나 항만을 활용한 리스크 분산 전략을 수립해야 함.

포워더 — 혼잡으로 인한 운송 지연과 비용 변동성을 고려해 고객사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연한 운송 솔루션을 마련해야 함.

항만·선사 — 항만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선사는 기항지 조정과 선복 관리 전략을 최적화해야 함.

참고자료: USTR, 독일 제약 비용 미지급 301조 조사...22일 공청회 (검색일: 2026-09-27)